

#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실태와 방향

변성구(제주대)

## 〈 목 차 〉

1. 서 언
2.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 실태
3.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방향
4. 결 어

## 1. 서 언

민요는 국어교육에서 시가교육과 전통문화 교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 현장을 보면 국어교육의 일환으로서 민요교육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sup>1)</sup> 그것은 민요가 생활 현장에서 노래로서 점차 불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원인의 일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유일 뿐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민요가 생활현장에서 불려지지 않기에 때문에 교육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면, 이미 불려지지 않는 고대시거나 향가, 고려가요는 더욱 교육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이긴 하지만 민요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

1)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요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기인 1966년에 간행된 『중학 국어』(3-1)에 「베를노래」와 5차 교육과정기인 1991년에 간행된 『중학 국어』(3-2)에 「이양요」 2편이 있을 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전문학』이 교과 과정에 설치된 4차 교육과정기에는 민요가 포함될 수 있었다.

의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연구와 교육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민요교육이 소외된 근본적인 이유는, 구비문학이 현대 문학이나 고전문학의 장르에 비하여 연구와 교육의 역사가 짧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민요는 구비문학의 장르 중 사설·가락·기능이 복합된 구연물이라 문학·음악·민속으로서의 연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장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연구 성과물이 적고, 이론화가 어렵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한가지 민요교육이 소외된 이유는 그 동안 학계에서 본격적인 민요 연구보다는 자료의 수집과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요는 구비 전승되는 장르이기에, 채록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사라져가는 민요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전적으로 매달렸다.<sup>2)</sup>

그래서 민요를 하나의 문학 장르로 연구하는 본격적인 작업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다.<sup>3)</sup> 그러나 아직도 대학에서의 구비문학 또는 민

2) 민요의 조사 작업은 민요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초창기 민요연구는 민요 연구서라기보다는 자료집이 중심이었다. 예로 김소운(『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점, 1933), 방중현·김사엽·최상수(『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성경린·장사훈(『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49), 고정옥(『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진성기(『남국의 민요』,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58), 김영삼(『제주도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 임동권(『한국민요집』1~6, 집문당), 김영돈(『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조동일(『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0), 한국문화인류학회(『전국민속조사 종합보고서』민요편, 문화재관리국), 조동일(『경북민요』, 형설출판사, 1977), 정선아리랑제위원회(『정선 아리랑』, 1977), 서원섭(『울릉도 민요와 가사』, 형설출판사, 1982), 이인영·홍순석(『내고장 민요』, 용인문화원, 1983)의 간행물 외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구비문학대계, MBC의 한국민요대전 등은 주요한 민요자료집이다.

3) 민요 연구사에서 초기 연구서로는 주왕산(『조선민요개론』, 중앙중학, 1947), 장사훈(『민요와 향토악기』, 상문당, 1948), 고정옥(위의 책), 임동권(『한국민요사』, 동국문화사, 1961), 임동권(『한국민요연구』, 선명문화사, 1974) 등이 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민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행(『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1980), 조동일(『근대 민요에 나타난 항일정신』, 1980), 정동

요교육을 돌아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 소외되는 현상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sup>4)</sup> 대학에서의 민요교육은 민요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어교육으로서 민요교육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외에 중등학교 현장교육에서 민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자못 크다고 하겠다.

학교교육에서 민요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인 문학에 민요가 수록되면서, 문학교육의 한 자리를 이 민요가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는 민요가 12편이 수록되어 있다. 즉, 강강술래, 진도 아리랑, 시집살이 노래, 만가(애소리), 베틀노래, 잠노래, 만고강산, 노내기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 타령, 정선아라리, 자장가 등이다. 이는 이전 문학 교과서에서 「광복군 아리랑」, 「논매기 노래」, 「자장가」, 「이어도 타령」, 「아리랑 타령」, 「시집살이요」 등 6편이 실려 있었던 것에 비하면 배나 증가한 것이 된다.

문제는 이 민요들이 한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18종 교과서에 두루 나뉘어 수록되어 있기에 선택하지 않은 교과서에 실린 민요는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인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8편, 중학교 5편, 고등학교 2편으로 수록된 민요 편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요를 한 단원의 핵심 학습제재가 아니라 다른

---

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최철·설성경의 『민요의 연구』(정음사, 1984), 최철편저(『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를 비롯하여 윤석달(『근대 민요에 나타난 민중의 현실인식』, 1985), 김시엽(『근대 민요 아리랑의 성격 형성』, 1985), 강동학(『정선아라리의 연구』, 집문당, 1988), 박민일(『한국아리랑문학연구』, 강원대출판부, 1989), 김기현(『밀양 아리랑의 연원과 그 변종들에 대한 고찰』, 1991), 좌혜경(『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김영돈(『제주도민요연구(하)』, 민속원, 2002) 등의 연구 논문이나 저서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4) 최근에는 비교적 많은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과 과정에 ‘구비문학’이 설강(設講)되어, 구비문학의 한 영역으로 민요가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학의 경우에는 ‘민속학’이나 ‘민속문학론’이라는 강좌 속에 구비 문학이나 민요가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작품과의 비교하거나 참고하는 자료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문학의 경우 민요에 대한 교육내용은 주로 '민요의 장르', '민요의 특성'이나 각 민요 작품에 대한 소개와 감상에 머물고 있다. 즉, 민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소개되고, 민요가 왜 어떻게 불리며 어떻게 전승되고, 그 문학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요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우리 국어교육 현장에서 민요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어교육의 지역화 방안에 대해서도 덧붙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요교육을 위한 어떤 민요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는다.

## 2.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실태

국어교육에서 어떤 민요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음악 및 사회 교과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 2.1 초등학교에서의 민요교육 실태

초등학교에서의 민요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어떤 민요(동요 포함)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8편이 실려 있다.

#### ■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민요

1학년 : 달달 무슨 달(동요)

- 2학년 : 두껍아 두껍아(동요), 토끼타령(민요)
- 3학년 : 어따까지 왔니(동요), 가가거겨노래(동요), 아리랑(민요)
- 4학년 : 앞산아 당겨라(동요), 배배 봉어배(동요)
- 5학년 : 꿩지나칭칭나네(민요)
- 6학년 : 방아깨비(동요), 달아달아 밝은달아(민요)

민요와 동요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단원과 관련지어 학습 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학년 단위로 민요 편수를 보면 1~2편, 많아야 3편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민요보다는 동요가 많이 실려 있다. 이것은 아동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과서를 편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요의 경우 널리 알려진 아리랑과 꿩지나칭칭나네는 눈 여겨 볼만 하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대단원 '1. 알아보고 알려주고', 소단원 '2. 알고 싶어요'에 실린 아리랑을 통한 민요교육의 방법을 살펴본다.

이 단원에서는 아리랑을 직접 소개하지 않고, 아리랑에 대한 모둠별 조사활동 과정과 그 발표한 예문을 통해 아리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둠별 활동을 위해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리랑은 누가 지었을까?
- 2) 아리랑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 3) 아리랑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4) 아리랑의 가락과 노래말은 어떠할까?

모둠별로 과제를 탐구하여 발표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4모듬의 과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아리랑의 사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경기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을 아리랑과 가락 및 노래말이 다른 노래로 발표해 놓고 있다.

이러 학습활동을 통해 “다음은 아리랑을 부를 때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말입니다. 내가 들어본 노래말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와 같이 활동과제를 제시한 후

예요로

-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만 주소(정선 아리랑)
- 2) 아리 아리 스리 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강원도 아리랑)
- 3)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아리랑 어어얼씨구 날 넘겨 주소밀양 아리랑)
- 4)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헤예헤 아리랑 웁웅웅 아라리가 났네(진도 아리랑)
- 5)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나 아리랑 어얼수 아라리로구려(경기도 아리랑)

와 같이 아리랑 계열의 노래 후렴을 읽고 있다.

이 단원은 아리랑이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를 학생 중심의 모둠별 탐구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 민요교육 활동은 바람직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두 번째 활동 과제는 “아리랑을 부를 때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말을 친구와 새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새로 만든 노래말에 가락을 붙여 불러 봅시다.”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민요의 노래말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심화학습 활동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동학년 음악교과에서 24번째 배울 아리랑과 연계한 학습을 실시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또한 3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 ‘2.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단

원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리랑은 고장마다 노래말과 곡조가 다른 노래가 전해져 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 있음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이 단원을 학습하는데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이들 노래의 사실을 읽어보거나, 테이프를 통해 노래를 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는 지역화 교육 차원에서 <사회과 지역탐구> 교과서를 지역교육청별로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살기 좋은 우리 고장』으로 발간되어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 <사회과 지역탐구> 교과서를 보면, 제주도의 설화와 민요를 교육 자료로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우리고장에 전해오는 노래』 단원에는 제주도 민요로 해녀 노젓는 소리와 자진 사대소리 외에 동요로 꼼짝꼼짝, 살레안에 중이, 꿩꿩 장서방이 사실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 민요의 사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녀 노젓는 소리(해녀노래)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혼착손에 빗창꿍꿍 혼착손에 테왁을 꿩영  
 혼질두질 들어가난 들어간보난 저승도가 분명허다  
 요넬젓고 어덜가리 진도나 바당 혼꼴로 가민  
 은과 금이 풀렸던가

● 자진 사대소리(김매는 노래)

어긴 여랑 사대로다 어긴 여랑 사대로다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어긴 여랑 사대로다  
 요 검질아 저 검질아 어긴 여랑 사대로다

그런데 지도교사를 위한 학습지도 자료를 보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는 없고, 오직 제주도 민요의 성격과 우리 교장에서 전해져오는 민요 목록과 사설 일부만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예요에서 볼 수 있듯이 혼착(혼착), 혼골(혼골), 꼴렸던가(꼴렸던가)와 같이 제주어에 남아있는 아래 아(·)표기 처리가 미흡하다.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은 1인 교사의 전담이기에 국어, 음악, 사회과목을 연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중심의 체험학습활동이 병행된다면 민요교육은 그 기초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학년 교과 구성은 민요교육 더 나아가 국어교육의 지역화에 대한 한 가지 방안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아리랑 이외의 다른 민요의 경우를 보면 아리랑처럼 학습활동의 핵심제재가 되지 못하고 참고자료나 비교자료에 그치고 있다. 한 예로 5학년 1학기 '쉽터'에 나와 있는 쾌지나칭칭나네란 민요는 '쾌지나칭칭나네'를 후렴으로 하면서 노래말을 만들어보는 단순한 활동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6학년 1학기 말하기·듣기·쓰기에 소개된 방아깨비와 달아 달아 밝은 달이는 동요나 민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데 참고할 자료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비해 음악 교과서에 실린 민요는 50편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동·민요가 노래로 전승되면서 음악의 바탕이 된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양음악화된 음악 교과서를 전통민요나 국악 중심으로 고쳐야 된다는 점을 음악계가 꾸준히 지적하고 자료화해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동·민요는 다음과 같다.

● 1학년(13편)

1학기 : 남생아 놀아라(전래동요), 새는 새는(전래동요), 우리 형제(전래동요)  
우리마을(전래동요), 두꺼비집이 여물까(전래동요), 두꺼비(전래동요)



2학기 : 이박저박(전래동요), 달두 달두 밝다(전래동요), 동아따기 노래(전래동요) 기와밧기(전래동요), 개구리(전래동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전래동요), 널뛰기(전래동요)

● 2학년(11편)

1학기 : 어깨동무(전래동요), 꼭꼭숨어라(전래동요), 벌아벌아 꿀 떠라(전래동요) 덕석물기(전래동요), 에농데농(농요)

2학기 : 등개등개 등개야(전래동요), 월위리청청(전래 동요), 꼬방꼬방(전래동요) 대문놀이(전래동요), 대문놀이(전래동요), 비자나무(전래동요)

● 3학년(9편)

실구대 소리(전래동요), 명주 모내기 소리(농요), 자장가(전래동요), 매롱이 소리(전래동요), 청어 엮자(전래동요), 남생아 놀아라(전래동요), 아리랑(우리나라 민요), 가을밤(전래동요), 색시풀(전래동요)

● 4학년(6편)

나물노래(전래동요), 도라지타령(우리나라 민요), 천안 삼거리(우리나라 민요), 강강술래(우리나라 민요), 새노래 (놀이요, 전래동요), 금다래궁(우리나라 민요)

● 5학년(5편)

고사리꺾자(전래동요), 떡 노래(전래 동요), 널리리야 (경기도민요), 멸치 잡는 노래(제주도민요)

● 6학년(6편)

등당기타령(전라도민요), 싸름(황해도민요), 수심가(평안도민요), 거문도 뱃노래(전라도민요), 풍년가(경기도민요), 쾌지나칭칭나네(경상도민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동·민요를 분석해 보면 저학년의 경우 동요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그것도 놀이와 함께 불려지는 동요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학년으로 가면서 3학년에서 모내기소리와 아리랑이

소개되었고, 4학년부터는 도라지타령, 천안삼거리, 강강술래, 널리리라, 멸치잡는 노래, 거문도 뱃노래, 꿩지나칭칭나네 등 주로 놀이와 관련된 유희요나 가창을 위해 불려지는 창민요가 주로 수록되고 있다.

음악교과에서의 민요교육은 주로 저학년의 경우는 듣고 따라 부르기가 중심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학년 음악의 청어엮자라는 동요 단원을 보면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불러보자, 주고받으며 노래를 불러보자, 청어엮기놀이를 하며 즐겁게 노래를 불러보자”와 같이 학습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리랑의 경우도 “1) 자연스런 소리로 노래를 불러보자, 2) 우리 민요의 멋을 살려 노래를 불러보자”와 같이 노래 부르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노래의 창법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4학년 음악에서 강강술래를 보면 “강강술래와 자진 강강술래를 부르며 빠르기의 변화를 알아보자”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6학년의 거문도 뱃노래 단원을 보면 “1) 가락의 흐름을 알고, 떠는 소리와 흘러내리는 소리를 표현해 불러보자, 2) 우리 조상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를 감상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자”는 활동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도라지 타령의 경우는 단소로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기악적 기능의 향상에도 초점을 두고 학습활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2.2 중학교에서의 민요교육 실태

중학교 국어교과에 실려 있는 민요는 아래에서 보듯이 5편에 불과하다. 그것도 민요 학습을 위한 단원 설정에 의해 민요가 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학습활동의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민요

- 1학년 : 자장노래(2편)
- 2학년 : 모내기노래(민요)
- 3학년 :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아리랑

1학년 국어에 실린 자장노래는 “자장노래를 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노래를 부르듯이 두 작품을 읽어보자. 그리고 이 두 편의 자장노래를 참고하여 나의 자장노래를 지어보자”는 활동 과제의 자료로 제시되었다.

자장노래는 아기를 재우면서 부르는 노래이기에 자장노래를 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음악 시간에 불렀던 “자장자장 우리아기” 하는 노래의 기억을 되살릴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자장가는 지역적 차이가 있기에 제주도의 학생들은 “자랑자랑 뽕이자랑”으로 부르는 노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자장 노래 1	자장 노래 2
멍멍개야 짚지 마라	선녀같이 예쁜 애기
꼬꼬닭아 울지 마라	자장자장 우리 애기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곱게 곱게 자는 밤에
자장자장 우리 애기	괴도 개도 아니 온다
엄마품에 꼭 안겨서	자장자장 우리 애기
칭얼칭얼 잠노래를	셋별같이 맑은 눈에
그쳤다가 또 하면서	조랑조랑 땃히어라
쌌근쌌근 잘도 잔다.	(고성 지방)
(예천 지방)	

그런데 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에 소개한 자료와 같이 예산과 고성 지방에서 수집된 자장가 두 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장노래를 지으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보다는 오히려 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에 불려진 자장가를 투입하고, 그 자장가에 담긴 부모의 심정을 느껴보게 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의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에 나온 모내기노래는 생각 넓히기(심화학습) 활동자료로 모내기 작업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 ● 모내기노래

어기야 어기여루 상사되여  
 이 농군들 잘도 허네, 우리 농군들 잘도 헐다.  
 어기여 어기여루 상사되여(후렴 이하 생략)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워지네.  
 월출 동녘 달 떠오르고, 일락 서산에 해 떨어지네.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에도 풍년일세.  
 소리를 맞세 소리를 맞아, 농군들아 소리를 맞세.  
 올해도 풍년이고, 내년에도 풍년일세.  
 딸아 딸아 막내딸아, 너만 곱게 잘만 커라.  
 여기도 심기고 저기도 심기고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워졌네.

이 민요에 대한 학습활동 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 1) 옛날 사람들은 모내기를 하면서 왜 모내기 노래를 불렀는가?
- 2) 옛날의 모내는 모습이 모내기노래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 3) 요즘에도 모내기노래를 부르는가?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 문학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앞의 세 과제는 모둠별로 또는 개인별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번 과제는 민요는 문학이라는 전제를 내건 비약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민요는 어떤 문학인가에 대한 학습이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이다. 민요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계교

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에도 단원의 핵심 제제가 아닌 학습활동에 진도 아리랑과 전선 아리랑 두 편을 소개하고는

- 1) 이 민요를 들어보고 그 감상을 간단히 써보자
- 2) 민요 가사를 글로 읽을 때와 직접 들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주지 않을까 한다. 민요는 서민들의 생활감정이 집결되어 전승되어온 구비문학이기에 그 감상법도 개인 창작의 시 감상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선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민요감상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민요감상은 학생들이 부담을 줄 뿐이기 때문이다.

국어교과에서 민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연계지도를 위한 교과서 편성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중학교 음악교과에서의 민요교육은 초등학교와 달리 전래동요가 제외되고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는 창민요를 중심으로 민요가 선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음악교과서 역시 여러 출판사에서 발간되고 있기에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된 것이냐에 따라 수록된 노래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경향은 유사한 편이다.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민요는 다음과 같다.

● 1학년(두산)

상주 모심기소리(경상도 민요), 경북궁타령(경기도 민요), 정선 아라리(강원도민요), 오돌또기(제주도 민요), 천안삼거리(충청도 민요), 씨름(황해도

민요), 강원도 아리랑(강원도민요), 풍년가(경기도 민요), 자진농부가(전라도 민요) - 8편

● 2학년(음악춘추사)

울산아가씨(경상도민요), 옹헤야(보리타작소리, 경상도민요), 사설 난봉가(경기도민요), 강원도 아리랑(강원도민요), 박연폭포(황해도민요), 몽금포타령(황해도민요), 풍년가(경기도민요), 신고산타령(함경도 민요) - 8편

● 3학년(두산)

진도아리랑(전라도민요), 배틀노래(경기도민요), 노랫가락(경기도민요), 신고산타령(함경도민요), 뱃노래(경상도민요), 물레타령(전라도민요), 새타령(전라도민요), 니리구 얼싸(황해도민요) - 9편

총 수록 편수가 25편이지만, 대부분은 단원의 핵심 학습자료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들이다. 예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경상도 지방의 상주모심기소리는 학습할 핵심제재로 제시되었고, 이어 학습활동에서 “1) 우리 지방의 민요와 다른 지방의 민요를 비교하여 들어보자”는 과제와 “2) 각 지역의 민요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느껴보자”는 과제의 실행을 위해 경기도의 경복궁타령,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 제주도의 오돌또기, 충청도의 천안삼거리를 악보와 함께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탐구활동으로 전국의 지도에다 각 도별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찾아서 쓰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고곡으로 황해도 민요 싸름과 강원도 민요 강원도 아리랑의 악보를 소개하고, 그 옆에 그 민요의 가락적 특징을 간략히 덧붙여 학생 스스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제는 초등학교 5학년 멀치잡는 노래 단원의 학습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교육 차원을 고려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2.3 고등학교에서의 민요교육 실태

고등학교 국어(상·하)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과정의 국어교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찬되고 있다. 따라서 전 단계의 학습내용과 연계를 이루면서 단원이 구성되고 국어교육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읽기, 언어, 문학영역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해서 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민요의 경우는 이런 원칙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민요는 우리 문학사에서 고전시가는 물론 현대시가의 형성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장르임에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만 논의할 뿐 실제 교과서 편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내용 중 최종 항목과 수준별 학습활동으로 예시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내용 :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수준별 학습활동 예
  - Ⅰ 기본 Ⅰ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을 읽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찾는다.
  - Ⅰ 심화 Ⅰ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

이를 위해 고전과 현대문학의 시, 소설 등 중심 장르의 작품들만이 학습되고 있을 뿐, 한국 시가문학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요에 대해서는 한 단원도 설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의 민요교육은 부수적인 활동의 하나일 뿐이며,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어(상), (하)에 수록된 민요가 2편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어(상)의 대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에는 청산별곡, 어부사시사.

진달래꽃, 유리창, 팡아의 다섯 편의 시가 실려 있고, 민요는 학습활동 2번 '함께 하기'에 1편이 소개되고 있다.

학습활동의 과제를 그대로 살펴본다.

2. 문학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청산별곡'과 '아리랑 타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발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이 '아리랑 타령'이라는 신민요 1편이 국어(상)에 유일하게 실린 민요이다. 청산별곡이라는 고려속요를 본 단원에서 학습한 후 이 민요와 비교해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여기서 민요는 고전 작품을 감상하는 데 활용된 하나의 보조적 학습 자료에 불과한 셈이다. 이 '아리랑 타령'이 불려졌던 시대에는 어떤 민요들이 불려졌는지, 아리랑 타령이라는 민요의 사실은 이것뿐인지 더 있는지,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떻게 불려지는지, 오늘날 널리 알려진 아리랑은 그 당시 불려졌는지 불려지지 않았는지 등 민요와 관련된 사항은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어(하)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국어(하)에는 대단원 5. 감동을 주는 언어 단원의 보충학습에 경상북도 경산지방의 시집살이 노래 1편이 실려 있다.

이 시집살이 노래는 6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학교과에 실려 있던 것으로 교과서 개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민요이기도 하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楸)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수저 놓기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짘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어머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어머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뽀족새요,  
 시아지비 뽀족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두 폭블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배개머리 소(沼)이 졌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들어오네.

..... <국어(하), 248-249쪽>

이 민요와 관련된 학습활동 과제는 대단원 '감동을 주는 언어'와 관련 짓고 있는데, 그 첫째가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것과 둘째, 이 민요에 나타난 상황과 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편의 민요를 시적으로 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민요가 보충학습의 하나로 실려 있기에 민요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이 학교 현장에서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집살이노래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대표적인 부녀요의 하나이다. 따라서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집살이노래를 조사해서 비교 감상해보는 것도 민요의 이해를 깊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문학 교과서 속에서 민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하는 문학교과서의 민요 수록 상황을 살펴보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는 따로 명기하지 않았고, 중복된 것도 1편으로 처리하였다.

- 강강술래, 진도 아리랑, 시집살이 노래, 만가(애소리), 베틀노래, 잠노래,  
만고강산, 모내기노래, 밀양아리랑, 아리랑 타령, 정선아라리, 자장가  
(총 12편)
- 진주 난봉가(시집살이노래) - 대한교과서 문학(하)의 참고자료

한두 가지 작품의 예를 들어보자. 금성출판사의 문학(하)에 대구지방의 민요인 잠노래가 실려 있는데, “잠을 의인화하여 꾸짖고 원망하는 표현이 익살스럽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여인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알아보자”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는 단지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의 한 편을 감상하면서 여성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대한교과서 문학(하)에는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가 문학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알아보자는 목표 아래 진주난봉가 중에서 앞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삼 년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야 아가 며늘아가  
진주 낭군 오실터이니 진주 남강에 빨래가라  
진주 남강 빨래가니 산도 좋고 물도 조아  
우당탕탕 발래하는데 난데없는 말굽 소리

옆 눈으로 힐끗 보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 본 듯이 지나간다  
 흰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늘아가  
 진주 낭군 오시었으니 사랑방에 나가봐라  
 사랑방에 나가 보니 온갖 가지 안주에다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본 며늘아가 아랫방에 물러나와  
 아홉 가지 약을 먹고서 목 매달아 죽었더라

교과서에 제시된 민요 감상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는 “첫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둘째,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의 현실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셋째, 21세기 여성의 사회적 권익과 남녀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민요를 시가 작품의 하나로서 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도 김인정 교과서이므로 중복되는 민요도 있었고, 전혀 다른 민요가 실려 있을 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한 권씩만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도서출판 태성의 고등학교 음악(1학년용)에는 새타령(남도민요), 옹헤야(동부민요), 울산아가씨(동부민요), 뱃노래(동부민요), 박연폭포(경기민요), 수심가(서도민요), 오돌또기(제주민요) 등 7곡이 수록되어 있고, 교학사의 ‘음악과 생활’(2학년용)에는 노랫가락(경기민요), 자진호미타령(서도민요), 신고산타령(동부민요) 등 3곡이 “V. 우리민요”에 실려 있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에서의 민요교육은 전국의 지역별 대표적 민요를 감상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해녀노래나 방아노래와 같은 노동요보다는 창민요가 주로 수록되어 있어, 노래 부르기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 국어교과에서의 민요교육의 실태를 분석해 보았는데, 이를 몇 가지로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 국어교육에서는 음악교육에서보다 민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민요를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해서 가르치는 단원이 초등학교 3학년의 '아리랑'외에는 전무하다는 것과 다루어진 민요의 편수가 극히 적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루어진 민요도 문학교육의 참고자료 또는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각급 학교별로 연계성 있는 민요교육을 위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것도 민요교육의 현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둘째, 국어교육에서는 민요를 하나의 시로 보아 민요의 사설만을 분석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주로 분석주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시, 즉 문학교육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요를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시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장르, 율격, 시어, 비유, 상징, 서정적 자아, 정서, 향유 계층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습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민중에 의한 적층 문학이자 집단 공동체의 문학인 민요는 개인 창작인 시와는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감안한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음악교과를 통해 노래로서의 민요를 학습할 기회가 있지만, 국어과의 학습 목표와 내용은 음악과와 다르기 때문에 노래로 듣고 부르면서 민요를 감상하는 기회를 국어교과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방법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이거나 과제로 제시하여 해결하게 하는 과제 탐구 방식에 머물러 있다. 즉, 시 한편을 감상하기 위해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민요의 특성을 살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민요는 아리랑처럼 전국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것도 있지만, 대개 지역적, 향토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만큼, 민요교육에서 지역 민요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활동 과제가 국어교과서에는 찾아볼 수 없다. 단,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탐구>에서 해녀 노젓는 소리(해녀노래)와 자진 사대소리(발매는 노래)가 교과의 전통문화 이해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 3.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에서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국어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기록문학, 그것도 시와 소설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중들에 의해 구전되면서 형성되어온 구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논증하고 자료화하는 연구가 진척되고 이로 말미암아 구비문학은 저급한 문학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교육현장에서 기록문학과 대등한 위상을 지니게 될 때 국어교육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는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제안은 앞서 살펴본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의 실태를 바탕으로 첫째, 국어교육에서 민요를 가르치는데 어떤 민요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민요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세 가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해보자 한다.

#### 3.1 민요교육의 지역화

어떤 민요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민요교육의 지역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리랑 계열의 민요나 몇몇 특정 민요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민요 중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 민요를 교육 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창 위주의 창민요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 기능성이 강한 민요들도 교육 자료로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기능성이 강한 민요들은 대체로 지역성, 향토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지역의 민요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지역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인 국어교과서에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민요들을 다 수록할 수도, 가르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학생인 경우 아리랑, 강강술래 등 전국적으로 불려지는 민요도 알아야 하겠지만, 제주도에서 많이 불려졌으며, 제주도의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맏돌노래, 방아노래, 해녀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밭밟는 노래, 밭매는 노래 등 제주도를 대표할만한 노동요와 오돌또기, 이야흥, 서우젓소리 등 가창민요를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한 전제가 있다.

첫째, 지역별 민요의 교육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민요 자료가 발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별 민요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으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자료 검증은 미흡한 단계이다. 앞으로 민요교육론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 교재를 제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교사나 학생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어 교과서를 개편할 경우 지역 민요를 관련지어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게 학습활동 과제를 개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8차 교육과정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교과서를 편성할 때는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다.

셋째, 국어교사들이 지역 민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 민요는 학생들의 생활현장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흥미 있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민요의 경우는 아래아(·) 표기가 살아있고, 특이한 어휘들이 자주 등장하는 만큼 올바르게 표기된 민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민요를 활용한 국어교육은 제주어에 대한 교육과도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 3.2 민요의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교육

민요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중요한 사항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민요교육은 민요를 하나의 시, 즉 사설로만 분석하여 시처럼 해설하고 감상해왔다. 물론 민요는 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을 한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민요는 사실, 가락, 기능의 요소가 통합된 총체성을 지닌 구연물이기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교육은 민요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사실 중심의 문학교육이면서도 동시에 기능과 가락에 대한 학습도 보태져야 온전한 민요교육에 이를 수 있다.

민요는 집단 공동체인 민중의 구비전승에 의한 적층성과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른 민중의 생활상과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민요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요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음악성과 관련하여 후렴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특히 아리랑 계열의 가창민요는 대부분 후렴구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요의 경우에도 이런 후렴이 발달된 민요들이 많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선후창, 교환창 등 민요의 가창 방식은 물론 울격적 특성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민요의 구연은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 후렴뿐만 아니라 사설마저도 가창되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불러진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요의 경우 어떤 노동 현장에서 불러졌으며, 이때 불러진 후렴이나 사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노동요는 노동의 상황이나 양태에 따라 울격이나 사설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래를 통해 노동의 효율성을 기하고 동시에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얻는다는 민요의 기능성도 중요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민요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민요는 고전시의 형성 및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현대시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개화기 이후 주권 침탈기에 불러진 「신민요」 등은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근대시의 형성과 비슷한 시기에 민중들에 의해 널리 불려지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국어에서 교육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민요의 주제, 율격, 표현기법, 문체 등이 어떻게 현대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교육은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누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민요의 특성을 고려한 민요교육이 이루어질 때 민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3.3 학생 중심의 탐구 및 체험활동 전개

끝으로 국어교육에서 민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보다 더 소홀히 다루어진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지적 처럼 교과서에 실린 민요를 한 편의 시로 해설하는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이 주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요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제해야 할 것은 우선 교사가 국어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과서 편제가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민요교육의 지역화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지역 민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민요 자료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자료를 바꾸어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는 대체하며, 지역 민요를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원, 제재, 학습주제를 특설하여 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구성은 제재의 보완, 대체만이 아니라 학습활동 과제까지 보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요의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첫째, 민요와 관련된 지식적인 사항은 모듈별로 조사 탐구하여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백과사전, 민요자료집을 통해 과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은 가능하고도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인 초등학교 3학년 국어에서 아리랑



에 대한 모듈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학습을 시행하는 방법은 하나의 본보기라고 하겠다.

둘째, 민요는 구연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녹음된 테이프나 비디오 또는 CD를 통해 구연되는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 체험학습, 실연학습의 방법이다. 즉, 들으면서 따라 불러보게 한다는 것이다. 민요는 직접 불러 보아야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다. 노동요라면 작업하는 동작을 실연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해녀노래를 조사할 경우 해녀들이 노젓는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노래의 가락과 동작을 맞추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가능하다면 현장체험을 하거나, 민요 전승자를 초청하여 구연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교과수업 시간보다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민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민요를 사설만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정을 갖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길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민요교육에 대한 평가는 위의 교수·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민요에 대한 프로젝트나 과제학습의 결과물을 통해 모듈별 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식 중심의 평가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가치 및 태도의 평가를 위해 개인별로 지역민요를 조사하고 감상하게 하는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결 어

국어교육에서의 민요교육은 교육내용이나 자료 면에서 매우 소외되고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어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국어 교과서를 보면 문학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요는 구비문학의 한 장르로서 분명 문학교육의 영역에 속함에도 중학교 이상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민요에 대한 단원 설정은 고사하고 핵심체재로도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요교육의 확대를 위해 국어교육에서 시급한 과제는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교재의 재구성을 지역별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 교재의 획일화를 지양하는 일과 관련된다. 현재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이기에 전국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통일된 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결국 중앙문화만을 접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지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난 후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갈 생활의 터전이기에 그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나 문학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라 하더라도 지역화 교육을 위한 공간과 차시를 허용하는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국어교육의 보편성을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각 지역과 언어권의 사정에 따라 보완과 대체를 통한 지역화가 가능하도록 국어 교재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어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에 의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연구와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뒷받침은 대학이나 교육전문단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어교육에서 민요교육이 다른 문학 장르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어교육은 더욱 내

실 있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중학교 교육과정해설(2-국어), 교육부, 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2-국어), 교육부, 2000.

살기 좋은 우리 고장 3-2, 제주도북제주교육청, 2002.

윤여탁, "민요 연구와 교육의 현주소", 『고전 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